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 관련 요인

김두희¹, 강도희¹, 강선희¹, 강준호¹, 강지은¹, 곽현지¹, 김도형¹, 김민경¹, 고 은²

¹국립순천대학교 생명산업과학대학 간호학과 학부생, ²국립순천대학교 생명산업과학대학 간호학과 부교수

Factors Associated with Nursing Students' Communication Ability

Kim, Duhui¹ · Kang, Dohee¹ · Kang, Seonhee¹ · Kang, Junho¹ · Kang, Jieun¹ · Kwak, Hyunji¹
Kim, Dohyung¹ · Kim, Minkyung¹ · Ko, Eun²

¹Undergradugraduate Student, Department of Nursing, College of Life Science and Natural Resources, Sunchon National University,

²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College of Life Science and Natural Resources, Sunchon National University,
Suncheon, Korea

Purpose: Communication ability is one of the important competencies of professional nurs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hips between empathy, ego-resilience and communication ability among nursing students, as well as to identify the factors associated with nursing students'communication ability. **Methods:** The participants in this study were 158 nursing students attending 7 university, from 2 regions in South Korea. A web-based survey was conducted with standardized e-questionnaire generated using the Google form. The web-link was distributed to third-and fourth-year nursing students through a social networking service to obtain data on their level of empathy, ego-resilience and communication ability.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with SPSS/WIN 26.0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Results:** The mean scores of empathy, ego-resilience, and communication ability were 3.47 ± 0.39 , 2.95 ± 0.52 and 3.71 ± 0.56 , respectively. Communication ability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empathy ($r=.50, p<.001$) and ego-resilience ($r=.44, p<.001$). The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indicated that empathy ($\beta=.40, p<.001$), personality type (extrovert) ($\beta=.24, p<.001$), and ego-resilience ($\beta=.23, p=.001$) predicted 40.0% of variance in communication ability ($F=18.01, p<.001$). **Conclusion:** It is necessary to develop nursing education strategies to reflect factors associated with communication ability in order to strengthen this ability among nursing students.

Key Words: Communication, Empathy, Ego-resilience, Nursing students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간호대학생은 졸업 후 전문직 간호사로서의 역량을 갖추기 위해 4년 동안 효과적이고 안전한 간호제공을 위해 필요한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을 받게 된다. 이들은 졸업 후 신규간호사로서 질병으로 고통스러워하는 환자에게 전문적인 간호

서비스를 수행해야 할 뿐만 아니라, 환자 가족, 선후배 간호사, 병원내 여러 직업군과 협력하는 등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임상환경에 노출되게 된다. 의사소통능력은 대상자의 이야기를 공감하고 자유로운 형식으로 메시지를 주고받는 역동적인 과정을 통해 상호 간의 정보교환이 일어나도록 하는 능력이다[1]. 간호사의 업무 중 많은 부분이 의사소통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효과적인 의사소

주요어: 의사소통, 공감, 자아탄력성, 간호대학생

Received Dec 17, 2021 Revised Jan 26, 2022 Accepted Feb 4, 2022

Corresponding author: Ko, Eun, Department of Nursing, College of Life Science and Natural Resources, Sunchon National University, 255 Jungang-ro, Suncheon 57922, Korea. Tel: +82-61-750-3886, Fax: +82-61-750-3880, E-mail: eunko@scnu.ac.kr

©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Copyrights © Chonnam National University Research Institute of Nursing Science

<http://crins530.jnuac.kr>

통은 환자 안전과 팀워크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환자 돌봄에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된다[2]. 특히 복잡해진 의료환경에서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간호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대상자 건강유지를 위한 교육 및 상담 등의 간호사 역할에 비중이 커지게 되어, 다양한 임상상황에서 유능하게 대처할 수 있는 효율적인 의사소통능력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3].

이에 학부교육과정에서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은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한국간호교육평가원에서는 전문직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대상자와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능력을 간호대학생의 핵심역량이라고 하여, 많은 간호대학에서 의사소통역량을 간호교육 프로그램 학습성과로 설정하고 성과기반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간호교육의 질을 관리하고 있다[4]. 하지만 많은 간호대학생이 환자 및 보호자와 의사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중립적인 태도로 자신에 대한 소개, 개방적 질문 및 정보제공 등은 비교적 수행하지만, 환자가 불만을 제기하거나 정서적인 불편감 등을 호소하는 상황에서의 의사소통은 제한적으로 사용하며 어려워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5]. 때문에 이러한 의사소통능력은 신규간호사가 적응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주요한 이유가 되며[1], 간호사의 의사소통능력은 임상수행능력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3] 간호사의 의사소통능력에 대한 요구는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간호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임상실습교육은 이론적 지식을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과정으로 간호사에 대한 가치관과 태도, 전문직 간호사로서의 역할을 학습하는 과정이다[6]. 간호대학생은 임상실습 기간동안 낯선 실습환경에서 다양한 대상자와 직면하게 되며, 다양한 의료진, 타대학 간호대학생들과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경험한다[7], 이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에 대한 불안과 긴장을 초래하게 되며, 대상자와 치료적 관계를 맺고 이들의 건강상태에 대하여 보다 다양하고 깊게 탐색함으로써 효과적인 간호중재를 적용해야 하는 실습목표 달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7]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을 높이는데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의사소통능력이 짧은 시간의 집중적인 훈련으로 함양되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학부 교육과정 내에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계획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의사소통능력과 관련이 있는 주요 영향요인

을 확인하고 이러한 요인의 긍정적인 변화가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의사소통능력과 관련하여 인간의 긍정적인 특성을 발달시킴으로서 건강한 개인과 사회를 이룰 수 있다는 관점에서 이러한 특성에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공감능력은 타인의 관점을 수용하고 정서적 및 개인적 고통에 관심을 가지고 이해하며 정서적으로 반응하는 능력으로 대상자와의 친밀한 관계를 촉진시킨다[8]. 간호사의 공감능력은 대인관계에서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촉진하며, 특히 환자와 간호사의 치료적 신뢰관계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9]. 임상간호사의 의사소통능력은 공감역량을 매개하여 돌봄행위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9] 간호의 질 향상을 위한 필요조건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공감수준을 확인하고 의사소통능력과의 관련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자아탄력성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기통제 수준을 융통성 있게 조절함으로써 유연하게 반응하는 능력이며, 심리적 균형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는 역동적인 능력이다[10]. 자아가 탄력적인 사람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긴장, 인내의 수준을 조절하는 능력이 있어 낯선 상황에서 변화하는 상황적 요구에 유연하게 반응하여 성공적인 적응을 할 수 있다[10] 자아탄력성은 예상하지 못한 사건이나 불확실성에 직면하였을 때 발휘되는 적응력으로 간호사가 예기치 못한 상황에 직면할 때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된다[11].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은 학업효능감, 적응 및 안녕에 긍정적 효과가 있어[12], 자아탄력성이 높은 간호대학생은 복잡한 임상상황도 유연하게 받아들이고 의사소통능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과 관련하여 공감[13-15], 대인관계[14, 16], 자아존중감[13,17]이나 셀프리더십[17]과의 관련성에 관한 많은 선행연구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는 반면, 자아탄력성과 의사소통능력과의 관련성을 확인한 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18].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과 공감능력은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으며[18], 자아탄력성은 중재를 통한 후천적 습득 및 긍정적 변화가 가능하다[19]. 따라서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과 자아탄력성이 의사소통능력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며,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 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과 자아탄력성 및 의사소통능력의 관계를 확인하고, 의사소통능력 관련 요인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의사소통능력의 차이를 확인한다.
- 2) 대상자의 공감능력, 자아탄력성 및 의사소통능력의 정도를 확인한다.
- 3) 대상자의 공감능력, 자아탄력성 및 의사소통능력 간의 관계를 확인하다.
- 4) 대상자의 의사소통능력 관련 요인을 확인한다.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 자아탄력성 및 의사소통능력 간의 관계를 확인하고, 의사소통능력 관련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획단적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대상자는 G광역시와 C도 S시에 소재한 7개의 4년제 대학교 간호학과에 재학중인 3학년과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편의표집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대상자 선정기준은 4년제 대학 간호학과 3학년과 4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20세 이상 35세 미만인 자이다. 간호학과의 경우 3학년과 4학년에 임상실습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임상실습의 경험을 축적하는 과정을 통해 의사소통능력이 변화될 수 있다는 선행 연구결과를 근거로[7] 3학년과 4학년 재학생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35세 이상의 학생은 이전의 다양한 사회경험 등으로 연구결과에 차이를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본 연구에서 필요한 연구대상자 수는 Cohen의 표본추출 공식에 따른 표본수 계산 프로그램인 G*power 3.1.9를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을 위한 양측검정 유의수준 .05, 중간정도의 효과크기 .15, 검정력 .90, 예측변수 12개로 산출하였을 때 필요한 최소 표본수는 157명이었다. 온라인 설문을 이용하였으며 162명의 연구대상자가 참여하였다. 이 중 설문응답이 불충분한 2부와 연구대상자의 나이가 35세 이

상으로 연구대상자 제외기준에 해당되는 2부를 제외하여 총 158부의 자료가 분석되었다.

3. 연구도구

1) 공감능력

공감능력은 Davis [8]가 개발한 Interpersonal Reactivity Index (IRI)를 Kang 등[20]이 한국어로 번역하여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인한 IRI 한국어버전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Kang 등[20]에게 이메일로 도구 사용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 이 도구는 인지적 공감(관점 취하기, 상상하기)과 정서적 공감(공감적 관심, 개인적 고통)의 2개 영역, 4개의 범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범주 당 7개의 문항으로 총 28개의 문항으로 되어 있다. 각 문항은 ‘나를 잘 표현하지 못하는 문장이다’ 1점에서 ‘나를 아주 잘 표현한 문장이다’ 5점으로 측정한다.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공감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Kang 등[20]의 연구에서 도구의 내적일관성 신뢰도 Cronbach's $\alpha=.80$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77$ 이었다.

2) 자아탄력성

자아탄력성은 Block과 Kremen [10]이 개발한 도구를 Yoo 와 Shim [21]이 한국어로 번안한 후 수정·보완한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이메일로 도구 사용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 이 도구는 총 1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으로 측정한다. 4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Block과 Kremen [10]의 연구에서 도구의 내적일관성 신뢰도 Cronbach's $\alpha=.76$ 이었으며, Yoo와 Shim [21]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67$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87$ 이었다.

3) 의사소통능력

의사소통능력은 Rubin과 Martin [22]이 제시한 8가지 의사소통능력 구성개념에 Hur [23]가 7개의 개념을 합하여 수정·보완한 포괄적 대인 의사소통 능력 척도(Global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e Scale, GICC)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도구사용 전 이메일을 통해 도구 사용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 이 도구는 1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

점으로 측정한다.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의사소통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Hur [23]의 연구에서 도구의 내적일관성 신뢰도 Cronbach's $\alpha=.72$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88$ 이었다.

4)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은 연령, 성별, 학년, 성격유형, 임상실습 경험, 임상실습 기간, 임상실습 만족도, 시뮬레이션실습 경험, 전공만족도, 아르바이트 경험을 포함하였다.

4. 자료수집 및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연구자 소속대학의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2021년 8월 3일부터 9월 12일까지 자료수집이 진행되었다(IRB No. 1040173-202107-HR-021-02). 공동연구자는 연구대상 대학의 간호학과 학생회장을 만나 연구의 목적과 자료수집 방법을 설명하고 자료수집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 이후 해당대학 간호학과 사회 관계망을 통하여 연구대상자 모집공고문과 연구 참여를 위한 온라인 자료수집 링크를 게시하였다. 설문시작 전 연구에 대한 설명문을 읽고 연구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하여 온라인 동의서를 작성한 대상자에게 자료수집이 진행되었다. 대상자 설명문에는 연구의 목적, 방법, 응답도중 언제든지 원하지 않으면 참여를 철회할 수 있음과 무기명으로 코드화되어 비밀이 보장되며 참여하지 않음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이 없음이 설명되어 있었다. 설문작성에 약 10분이 소요되었으며, 연구참여에 대한 보상으로 온라인 기프티콘을 발송하였다.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IBM SPSS/WIN 26.0 프로그램(SPSS Inc, Chicago, IL)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공감능력과 자아탄력성 및 의사소통능력은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의사소통능력의 차이는 independent t-test와 one-way ANOVA로 분석하였으며, 사후검증은 Scheffé test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공감능력과 자아탄력성 및 의사소통능력 간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으며, 대상자의 의사소통능력 관련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이용하였다.

연구 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23.49 ± 1.94 세였으며, 여성은 121명(76.6%), 남성은 37명(23.4%)였다. 학년별로 보면 3학년이 73명(46.2%), 4학년이 85명(53.8%)이었다. 62명(39.2%)의 대상자는 자신의 성격이 외향적이고, 96명(60.8%)의 대상자는 내향적이라고 응답하였다. 89명(56.3%)의 대상자는 임상실습의 경험이 있었고 임상실습기간은 4주 이내가 38명(42.7%), 5주 이상 8주 미만이 31명(34.8%)이었다. 50명(56.2%)의 대상자가 임상실습에 만족하였으며, 139명(88.0%)의 대상자는 시뮬레이션실습 교육 경험이 있었다. 전공에 대한 만족도는 74명(46.8%)은 중정도, 75명(47.5%)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고, 132명(83.5%)의 대상자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었다(Table 1).

2. 대상자의 공감능력, 자아탄력성 및 의사소통능력 정도

대상자의 공감능력은 3.47 ± 0.39 점이었으며, 인지적 공감능력은 3.54 ± 0.50 점, 정서적 공감능력은 3.39 ± 0.35 점이었다. 자아탄력성은 2.95 ± 0.52 점이었으며, 의사소통능력은 3.71 ± 0.56 점이었다(Table 2).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의사소통능력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의사소통능력의 차이는 연령($F=4.57, p=.012$), 학년($t=-2.27, p=.025$), 성격유형($t=4.80, p=.001$), 임상실습 만족도($F=5.21, p=.007$), 아르바이트 경험($t=2.01, p=.046$)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대상자의 연령이 24세 이하이거나 25세 이상 29세 이하인 대상자의 의사소통능력은 3.70 ± 0.51 점, 3.86 ± 0.72 점으로 30세 이상인 대상자보다 높았다. 4학년은 3.80 ± 0.58 점으로 3학년보다 더 높았으며, 외향적인 성격의 대상자는 3.96 ± 0.52 점으로 내향적 성격의 대상자보다 의사소통능력 점수가 높았다. 임상실습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3.82 ± 0.58 점으로 그렇지 않은 대상자보다 의사소통 점수가 높았으며,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대상자가 3.75 ± 0.56 점으로 그렇지 않은 대상자보다 의사소통 점수가 높았다(Table 1).

4. 대상자의 공감능력, 자아탄력성 및 의사소통능력 간의 관계

대상자의 대상자의 공감능력, 자아탄력성 및 의사소통능

Table 1. Differences in Communication Ability by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58)

Variables	Categories	n (%) M±SD	Communication ability	
			M±SD	t or F (ρ) Scheffé
Age (yrs)	≤24 ^a	128 (81.0) 3.70±0.51	23.49±1.94	4.57 (.012) a,b>c
	25~29 ^b	25 (15.8) 3.86±0.72		
	≥30 ^c	5 (3.2) 3.05±0.47		
Sex	Male	37 (23.4) 3.64±0.71	3.73±0.51	−0.69 (.492)
	Female	121 (76.6)		
Grade	3 rd grade	73 (46.2) 3.60±0.52	3.80±0.58	−2.27 (.025)
	4 th grade	85 (53.8)		
Personality type	Extroverted	62 (39.2) 3.96±0.52	3.55±0.53	4.80 (.001)
	Introverted	96 (60.8)		
Experience of clinical practice	Yes	89 (56.3) 3.78±0.61	3.65±0.52	1.46 (.156)
	No	69 (43.7)		
Duration of clinical practice (weeks) [†]	≤4	38 (42.7) 3.78±0.57	3.89±0.51 3.65±0.90	0.39 (.679)
	≥5~>8	31 (34.8)		
	≥8	20 (22.5)		
Satisfaction in clinical practice [†]	Unsatisfied ^a	5 (5.6) 3.69±0.57	3.61±0.47 3.95±0.64	5.21 (.007) c>a,b
	Moderate ^b	34 (38.2)		
	Satisfied ^c	50 (56.2)		
Experience of simulation-based education	Yes	139 (88.0) 3.72±0.55	3.69±0.61	0.16 (.873)
	No	19 (12.0)		
Satisfaction in major	Unsatisfied	9 (5.7) 3.58±0.52	3.63±0.51 3.82±0.58	2.29 (.104)
	Moderate	74 (46.8)		
	Satisfied	75 (47.5)		
Experience of part-time job	Yes	132 (83.5) 3.75±0.56	3.51±0.55	2.01 (.046)
	No	26 (16.5)		

M±SD=mean±standard deviation.

[†]analyzed for experience of clinical practice (n=89)*.**Table 2.** Participants' Empathy, Ego-resilience and Communication Ability (N=158)

Variables	M±SD	Min	Max
Empathy	3.47±0.39	2.14	4.57
Cognitive empathy	3.54±0.50	2.00	4.91
Affective empathy	3.39±0.35	2.14	4.43
Ego-resilience	2.95±0.52	1.00	3.50
Communication ability	3.71±0.56	1.53	4.93

M±SD=mean±standard deviation; Min=minimum; Max=maximum.

력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공감능력과 자아탄력성 ($r=.26, p<.001$), 공감능력과 의사소통능력 ($r=.50, p<.001$) 그리고 자아탄력성과 의사소통능력 ($r=0.44, p<.001$)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순상관관계가 있었다(Table 3).

5. 대상자의 의사소통능력 관련 요인

대상자의 의사소통능력 관련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공감

Table 3. Relationships between Empathy, Ego-resilience and Communication Ability of Participants (N=158)

	Empathy	Ego-resilience	Communication	ability
			$r (\rho)$	
Empathy		1		
Ego-resilience	0.26		1	
	(<.001)			
Communication	0.50		0.44	
ability	(<.001)		(<.001)	1

능력과 자아탄력성, 그리고 의사소통능력과 유의미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학년, 성격유형, 임상실습 만족도, 전공만족도, 아르바이트 경험을 독립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학년, 성격유형, 임상실습 만족도, 전공만족도, 아르바이트 경험은 더미변수 처리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회귀분석을 위한 가정을 검토하였다. 독립변수들 간의 다

Table 4. Factors associated with Nursing Students' Communication Ability

Variables	B	SE	β	t	p	Tolerance	VIF
(Constant)	.76	.35		2.20	.029		
Grade (4 th grade)	.11	.07	.10	1.55	.123	0.89	1.13
Personality type (extroverted)	.27	.08	.24	3.60	<.001	0.85	1.17
Satisfaction in major (satisfied)	.01	.07	.01	0.02	.985	0.92	1.08
Experience of part-time job (yes)	.10	.10	.07	1.00	.219	0.89	1.13
Empathy	.57	.09	.40	6.11	<.001	0.91	1.10
Ego-resilience	.25	.07	.23	3.29	.001	0.84	1.19
$R^2=.42$, Adj $R^2=.40$, $F=18.01$, $p<.001$							
Durbin-Watson=1.91							

B=unstandardized estimate; β =standardized estimate; VIF=variance inflation factor.

*Dummy variables: Grade (3rd grade=0, 4th grade=1), personality type (introverted=0, extroverted=1), satisfaction in major (unsatisfied=0, moderate=0, satisfied=1), experience of part-time job (no=0, yes=1).

증공선성이 존재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분산팽창요인계수 (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를 확인한 결과, 임상실습 만족도 변수의 VIF가 10.045, 10.366으로 다중공선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임상실습만족도 변수를 제외한 변수만을 독립변수로 투입하였다. 분석결과 모든 변수에서 VIF는 10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Durbin-Watson 통계량은 1.91로 2값 근처에 있어 자기상관이 없어 오차 항들이 서로 독립적임을 알 수 있었다. 영향력 분석은 Cook's Distance 통계량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1.0 이상은 없었으며, 의사소통능력의 회귀표준화 잔차의 정규 P-P도표와 산점도를 확인한 결과, 선형성을 보였고 잔차의 분포가 0을 중심으로 고르게 펴져있어 오차항의 등분산성이 만족되어 회귀모형은 적합하였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대상자의 의사소통능력 관련 요인은 공감능력($\beta=.40$, $p<.001$), 외향적 성격유형($\beta=.24$, $p<.001$)과 자아탄력성($\beta=.23$, $p=.001$)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변인은 의사소통능력을 약 40% 설명하였다($F=18.01$, $p<.001$) (Table 4).

논 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 자아탄력성 및 의사소통능력 간의 관계 및 의사소통능력 관련 요인을 확인함으로써 예비 의료인인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을 증진을 위한 간호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은 3.47점으로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한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이 3.40점이었다는 선행연구결과[13]와 유사하였다. 한편 Hwang [24]의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공감점수는 3.66점으로 본 연구결과와 차이가 있었다. 공감능력은 성별, 학교나 학과 만족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학교나 학과 만족도가 높을수록 공감능력이 좋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24]. 본 연구대상자의 경우 선행연구 결과[24]와 비교해 볼 때 남학생이 23.4%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여 이러한 차이를 보인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자료수집 시기에 있어 본 연구대상자들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 1년 이상 비대면 수업에 익숙해진 학생들로,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 등은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코로나19와 같은 변화된 환경적 특성들이 대상자의 공감능력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과 관련있는 다양한 내·외적 특성변수 등을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하위영역별 공감능력은 인지적 공감능력이 3.54점, 정서적 공감능력 3.39점으로 인지적 공감능력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간호대학생의 인지적 공감능력이 정서적 공감능력보다 높았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지지한다[13,24]. 인지적 공감능력은 타인의 관점을 인지적으로 이해하고 타인의 마음 상태를 이해하고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이며, 정서적 공감능력은 타인의 정서상태를 공유하고 그 표현에 반응하는 능력을 의미한다[25]. 간호사의 공감능력은 환자의 필요에 적절하게 반응하고 환자와 의미있는 관계를 형성하는데 기여하며 궁극적으로는 환자 간호의 질을 높일 수 있으므로[26],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 향상을 위한 체계적이고 다양한 교육 전략 마련을 위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대

상자의 자아탄력성은 2.95 ± 0.52 점으로 동일한 도구로 측정한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이 2.98점이었다는 Oh 등[27]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본 연구와 측정도구에 차이가 있어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캐나다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을 4점 Likert 척도로 측정한 결과 43.56점(점수범위 4~56점)으로 65.5%의 대상자가 자아탄력성이 높은 집단, 29.9%의 대상자가 자아탄력성이 매우 높은 집단에 포함되었다 [12]. 한편 본 연구와 동일한 도구로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을 확인한 선행연구 결과 Jun [28]은 3.33점, Jun과 Lee [11]은 2.75점으로 연구마다 결과가 상이함을 알 수 있다. Jun [28]은 일 지역에 위치한 3개 간호대학 1학년부터 4학년 재학생을 연구대상으로 하였으며, Jun과 Lee [11]은 1개의 간호대학에서 500시간 이상의 실습경험이 있는 4학년 재학생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있어 차이가 있다. 자아탄력성은 연령, 성별, 전공적성, 학업성적이나 전공 만족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고[6,12], 경험이 쌓이면서 향상되는 경향[29]이 있으며 훈련 및 교육을 통하여 후천적 습득이 가능하므로[19] 자아탄력성과 관련된 다양한 특성적 변인들을 고려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전공교과 학습 및 임상실습의 경험, 임상실습 환경 뿐만 아니라 대학생활 동안의 교과외 활동 등의 경험이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파악 할 필요가 있으며, 4년 동안의 학부교육과정 동안 자아탄력성의 변화를 종단적으로 확인하는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대상자의 의사소통능력은 3.71점으로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 점수가 3.65~3.81점이었다는 선행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7,16,29]. 한편 의사소통능력 점수가 3.56점이었다는 Jo 등[16]의 연구결과보다는 높은 점수였는데, 이는 고학년이 저학년보다 의사소통점수가 높았다는 Hwang [24]의 연구결과를 고려해 볼 때, 본 연구대상자는 3학년과 4학년 학생들이 포함되어 1학년과 2학년이 40.9%를 차지하였던 Jo 등[16]의 연구대상자와 차이가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연구대상자의 의사소통능력은 3학년에 비해 4학년에서, 내향적인 성격인 대상자에 비해 외향적인 성격의 대상자가 더 높게 나타나 선행연구결과[18]를 지지하였다. 또한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대상자가 그렇지 않는 대상자에 비해 의사소통능력 점수가 높았는데, 이는 다수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며 [13,16,24] 동아리 활동경험이 있는 학생의 의사소통점수가

높았다는 연구결과[15]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겠다. 의사소통능력은 모든 사회조직에서 관계형성의 기본을 형성하는 토대가 되므로 동아리나 아르바이트 등의 활동은 다양한 대인관계 상황에서 의사소통능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결과 임상실습 만족도가 높은 경우 의사소통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임상실습교육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며, 임상실습교육이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임상실습 교육환경을 조성하는데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대상자의 의사소통능력은 공감능력 및 자아탄력성과 유의한 순상관관계가 있었다. 이는 공감능력이 높을수록 의사소통능력이 높아진다는 다수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며 [14,16,18], 자아탄력성과 의사소통능력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Kim과 Kim [18]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또한 본 연구결과 연구대상자의 공감능력, 외향적 성격유형과 자아탄력성은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을 약 40% 설명하였다. 이는 공감능력은 의사소통능력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인자라는 다수의 선행연구 결과를 지지한다[14,15]. 공감은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기꺼이 도우려는 것으로 의사소통의 중요한 요소이며[15], 특히 환자와 간호사의 치료적 관계형성에 있어 긍정적 요인이 되므로 의사소통능력은 예비 의료인인 간호대학생이 갖추어야 할 중요한 역량이라고 볼 수 있겠다. 공감능력을 높이는 것은 의사소통능력을 높일 수 있으므로[13]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을 함양하는 교과 및 교과외 프로그램을 계획할 때 공감능력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또한 본 연구결과 외향적 성격유형이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을 예측하는 요인이었으므로, 의사소통능력 증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계획할 때 대상자의 성격유형을 고려하여 각각의 특성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계획하거나, 성격유형의 차이를 기반으로 한 팀활동 등을 계획하여 반영하는 것도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본 연구결과 자아탄력성은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 자아탄력성은 개인의 내적인 자원으로 자아탄력성이 높은 사람은 우수한 인지능력을 갖추고 있어 당면한 문제를 통합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고 임상실무 상황에서의 위기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18]. 자아탄력성은 의미있는 관계 및 교육에 의해 개발되어질 수 있으

므로[30],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을 정립하는 것은 의사소통능력을 높이는데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육적 접근 방안을 계획할 때 공감능력과 자아탄력성을 함께 높일 수 있는 단계적 프로그램을 개발·적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일 지역에 위치한 7개의 간호학과에 재학중인 3학년과 4학년 학생을 편의추출하여 연구대상자의 대표성에 제한이 있다. 또한 연구대상자의 교육환경이나 실습경험 등이 다양할 것으로 생각되나 이러한 상황적 요인들을 충분히 통제하지 못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확대 해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 자아탄력성과 의사소통능력과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시도된 연구이다.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 자아탄력성 및 의사소통능력은 중간정도 수준이었으며 공감능력과 자아탄력성 및 대상자의 성격 유형은 의사소통능력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변수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 증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대상자의 성격유형에 따른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는 의사소통능력 증진을 위한 교육을 계획할 때 공감능력과 자아탄력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는 방향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간호교육적 측면의 의의가 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 자아탄력성 및 의사소통능력 간의 관련성만을 확인하였으므로 추후 이러한 변수들의 매개 및 조절효과를 확인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또한 의사소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들을 확인하고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하며,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적용하는 연구가 시도되기를 제언한다.

Conflict of Interest

The authors declared no conflict of interest.

References

1. Han M, Lee K. Effects of communication ability enhancement program for nursing students in Korea: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17;23(1):15-26.
<https://doi.org/10.5977/jkasne.2017.23.1.15>
2. Woloshynowych M, Davis R, Brown R, Vincent C. Communication patterns in a UK emergency department. *Annals of Emergency Medicine*. 2007;50(4):407-413.
<https://doi.org/10.1016/j.annemergmed.2007.08.001>
3. Kim MJ, Kim MO. Factors influencing clinical competence in general hospital nurses.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2021;21(10):668-678.
<https://doi.org/10.5392/JKCA.2021.21.10.668>
4. Lee SK, Park SN, Jeong SH. Nursing core competencies needed in the fields of nursing practice for graduates in nursing.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012;18(4):460-473.
<https://doi.org/10.11111/jkana.2012.18.4.460>
5. Son HK, Kim DH. Communication of students in nursing simulation using standard pati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18;16(5):267-276.
<https://doi.org/10.14400/JDC.2018.16.5.267>
6. Min ES. Relationship among stress of clinical practice, stress coping, ego-resilience and clinical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Korean Journal of Health Communication*. 2018;13(1):71-78.
<http://doi.org/10.15715/kjhcom.2018.13.1.71>
7. Yang YK. Influences of communication skill and interpersonal ability on clinical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2018;25(2):99-108.
<https://doi.org/10.7739/jkafn.2018.25.2.99>
8. Davis MH. A multidimensional approach to individual difference in empath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ety Psychology*. 1980;10:85.
9. Hong M, Han S. Relationship of communication competence with caring behavior in clinical nurses: the mediating effect of compassion competenc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2021;28(4):411-

420.
<https://doi.org/10.7739/jkafn.2021.28.4.411>
10. Block J, Kremen AM. IQ and ego-resiliency: conceptual and empirical connections and separat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996;70(2):349-361.
<https://doi.org/10.1037/0022-3514.70.2.349>
 11. Jun S, Lee Y. The effects of nursing students' emotional intelligence, self-efficacy, and clinical practice stress coping on career identity.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020;20(9):767-783.
<https://doi.org/10.22251/jlcci.2020.20.9.767>
 12. Spurr S, Walker K, Squires V, Redl N. Examining nursing students' wellness and resilience: an exploratory study. *Nurse Education in Practice*. 2021;51:102978.
<https://doi.org/10.1016/j.nepr.2021.102978>
 13. Hwang YH, Park SJ. The effect of empathy and self concept on problem solving: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communication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20;26(4):348-356. <https://doi.org/10.5977/jkasne.2020.26.4.348>
 14. Choi HS, Kim KA, Lee SB, Joung H. The effects of empathy and gender role identity on communication competence in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Critical Care Nursing*. 2020;13(3):41-50.
<https://doi.org/10.34250/jkccn.2020.13.3.41>
 15. Park SJ, Kang JS, Kim GH, Park JY, Yang GR. Effects of self-awareness, other-awareness and empathy on communication ability of nursing students. *Korean Journal of Health Communication*. 2019;14(2):103-108.
<http://doi.org/10.15715/kjhcom.2019.14.2.103>
 16. Jo E, Kim HS, Hwang SJ. Mediating effect of communication ability in the relation between empathy and interpersonal relation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20;26(3):290-298. <https://doi.org/10.5977/jkasne.2020.26.3.290>
 17. Joung WJ, Park E, Kim RH, Lee WJ, Lim JS. The effect of nursing college student's communication ability and self-esteem on self-leadership. *Journal of Kyungpook Nursing Science*. 2020;24(2):49-57.
<https://doi.org/10.38083/JKNS.24.2.202008.049>
 18. Kim B, Kim Y. The effects of self-efficacy, communication ability and empathy on ego resilienc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Health Informatics and Statistics*. 2021;46(2):238-245. <https://doi.org/10.21032/jhis.2021.46.2.238>
 19. Jackson D, Firtko A, Edenborough M. Personal resilience as a strategy for surviving and thriving in the face of workplace adversity: a literature review. *Journal of Advanced Nursing*. 2007;60(1):1-9.
<https://doi.org/10.1111/j.1365-2648.2007.04412.x>
 20. Kang I, Kee S, Kim SE, Jeong B, Hwang JH, Song JE, et al.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Korean-version of interpersonal reactivity index. *Journal of the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2009;48(5):352-358.
 21. Yoo SK, Shim H. Psychological protective factors in resilient adolescents in Korea.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2002;16(4):189-206.
 22. Rubin RB, Martin MM. Development of a measure of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e. *Communication Research Reports*. 1994;11(1):33-44.
<https://doi.org/10.1080/08824099409359938>
 23. Hur GH. Construction and validation of a global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e scale.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2003;47(6):380-408.
 24. Hwang HM. Relationship among empathic ability, communication skill, and clinical practice stress in clinical practice of nursing students. *Korean Journal of Health Communication*. 2017;12(1):1-10.
<http://doi.org/10.15715/kjhcom.2017.12.1.1>
 25. Smith A. Cognitive empathy and emotional empathy in human behavior and evolution. *Psychological Record*. 2006;56(1):3-21. <https://doi.org/10.1007/BF03395534>
 26. Kim H, Lee M. Factors influencing empathy in nursing students in Korea.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15;21(2):237-245.
<https://doi.org/10.5977/jkasne.2015.21.2.237>
 27. Oh YJ, Lee ES, Park MS, Lee EM. The effect of ego-resilience, social support, self-leadership on nursing student's college life adjustment.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2021;23(2):787-797.
<https://doi.org/10.37727/jkdas.2021.23.2.787>
 28. Jun YH. Influence of compassion and rejection sensitivity

- on ego resilienc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020; 20(10):1-15.
<https://doi.org/10.22251/jlcci.2020.20.10.1>
29. Son JE, Kim SH. The influence of job stress, self-esteem, and resilience on the field adaptation in newly graduated nurses. *Journal of Korean Clinical Nursing Research.* 2019;25(2):151-160.
30. Ang WHD, Shorey S, Hoo MXY, Chew HSJ, Lau Y. The role of resilience in higher education: a meta-ethnographic analysis of students' experiences. *Journal of Professional Nursing.* 2021;37(6):1092-1109.
<https://doi.org/10.1016/j.profnurs.2021.08.010>